

익산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시·서부지방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국비 50억원 투입, 2023년 준공

익산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책임질 국립 치유의 숲이 도내 최초로 조성된다.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위치한 함라산에 조성되는 국립 치유의 숲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도내 대표 힐링 관광지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익산시와 서부지방산림청은 17일 익산시청에서 정현을 시장과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품격있는 산림복지시설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분담과 협의회 구성, 운영단계에서의 치유의 숲 역할 분담 등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 대상지 함라산(웅포면 웅포리 산95번지 일원, 62ha)은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자리하고 있어 산림자산 가치가 높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금강 낙조 경관이 일품이다.

시는 올해 국비 2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하고 오는 2022년 사업에 착공해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50억원이 투입되며 시민들의 면역력 향상과 신체·정신적 건강증진을 목표로 산림치유센터·전망대·무장애 데크 숲길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조성계획 중인 인접 지역에는 산림문화체험관,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 명품 임도 숲길(태봉골-철목재 9km구간), 중요 산림자산인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어 금강 낙조의 아름다움이 있는 웅포 곰개나무 캠핑장, 입점리 고분전사관, 웅포 골프장 등 주요 관광지가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의 숲은 산림환경 요소(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음이온 등)를 이용해 산림치유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숲이 조성되면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될 예정이다.

임산부는 숲해 교양·정신적 건강증진을 목표로 산림치유센터·전망대·무장애 데크 숲길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조성계획 중인 인접 지역에는 산림문화체험관,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 명품 임도 숲길(태봉골-철목재 9km구간), 중요 산림자산인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어 금강 낙조의 아름다움이 있는 웅포 곰개나무 캠핑장, 입점리 고분전사관, 웅포 골프장 등 주요 관광지가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의 숲은 산림환경 요소(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음이온 등)를 이용해 산림치유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숲이 조성되면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될 예정이다.

임산부는 숲해 교양·정신적 건강증진을 목표로 산림치유센터·전망대·무장애 데크 숲길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조성계획 중인 인접 지역에는 산림문화체험관,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6일 유흥업지부, 외식업지부 등 6개 위생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과 책임' 방역 정책에 협조 당부

군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생단체장 간담회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6일 유흥업지부, 외식업지부 등 6개 위생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정안의 주요내용인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2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각 업종별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통해 업소 내 방역소독 및 환기 철저 등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기준의 적극적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위생단체장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방안 강구와 경기침체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6일 유흥업지부, 외식업지부 등 6개 위생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정안의 주요내용인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2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각 업종별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통해 업소 내 방역소독 및 환기 철저 등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기준의 적극적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위생단체장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방안 강구와 경기침체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시민 안전망 구축 주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소관 주요 사업 신속 추진

군산시가 올해 계획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시민 안전망 조기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17일 안전건설국은 신년 서면 업무 브리핑을 통해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가치가 최고로 요구되는 시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올 해 예정돼 있는 각종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어린이 하foot길 안전지도사 운영 등이다.

또한 안전건설국 업무특성 상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많아 계획된 각종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사자재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서별 주요 추진예정 사업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안전총괄과) ▲쌍용에가 ~ 은과간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도시계획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23개 사업(건설과)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공사 등 12개 사업(주목행정과) ▲신흥도시숲 아간경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건축경관과) ▲차선도색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777억 여원에 달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해수유통 반영" 촉구

개발청, 수질 개선대책 언급 유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 방향을 보완·추진한다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20년 간 2단계(2011~2020년)에 걸쳐 수질개선 종합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30년에 새만금 호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그동안 실시한 수질 개선 사업 이상의 고강도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2006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 때 70억 톤의 해수유통 수량이 10억 톤으로 줄면서 1급수 수질이 3급수로, 2010년경 간척사업을 위해 새만금 수위를 1.5미터 정도 낮추면서 4, 5급수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2014년경 어선 전복사고로 하루 두 번 해수유통하던 것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면서 수질이 5, 6급수로 더욱 악화하

여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반대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뿐 그 변경(안)에는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수유통 시기를 2025년까지 미루고 있다며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희망의 땅 새만금을 더 이상 죽음의 호수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면, 새만금위원회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해수유통을 즉각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시민 편의 증진 '공공시설 단계적 개방'

익산시, 실내·외 체육시설 수용인원 제한 등

익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시는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개방 여부를 논의한 뒤 시설별 특성에 맞춰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6일 실내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야외 축구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단계적 개방을 시작으로 17일 복지시설, 어린이집, 시립도서관, 웅포캠핑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시립도서관은 자료실 내 독서공간과 함께 열람실은 30%만 개방하며 웅포캠핑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 대상으로 50%만 개방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익산시민에 한 해 수용인원의 50% 이내, 실내는 시설 4

㎡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운영된다.

문화체육센터 내 실내체육 시설은 오는 23일부터 운영되며 수영장은 추후 개방 여부를 검토한다.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포함)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개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도를 해소하고 집합금지, 운영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조기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홍보하고 한층 강화된 시설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해 자율과 참여 중심 방역 관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음식물처리장 악취 저감

익산 남부권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장 주변 지역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날 초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300배 이하)보다 낮은 희석배수 100배로 분석돼 악취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장은 하루 8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주변 지역의 악취 발생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업체는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60억원을 들여 바이오 공진인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건조화 시설로 변경하는 등 관련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건조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농도의 악취를 850도의 고온에서 연소시켜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도 시는 업체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 2020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식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오는 2월 28일 자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년식을 16일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직원들은 김미아(국제통상학부), 김범수(회화문화재 보존수복학과), 김재관(행정인문학부), 김정기(군사학과), 박천배(영어교육과), 송주홍(의학과), 삼대무(의학과), 안태천(전자융합공학과), 여태명(서예문화예술학과), 이용수(건축공학과), 이종덕(한의학과), 이호섭(한약자원개발학과), 전철홍(의학과), 정진환(미술과), 최원규(역사문화학부) 교수와 직원 김성구, 김중현, 김형로, 모경하, 박종선, 민대현, 장석호 선생 등 모두 22명이다.

이날 정년식은 소규모 인원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정년자들은 훈포장 및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으며,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한 정년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